

2014 프로야구
FA 계약 현황

17일 현재 계약순서 기준



FA 리턴매치… KIA-한화 승자는

KIA와 한화의 ‘전의 전쟁’이 2013 스토브리그에 불을 질렀다.

지난 주말 FA(자유계약) 선수들의 이동으로 프로야구가 후끈 달아올랐다.

롯데 강인호가 지난 13일 가장 먼저 4년 75억원(계약금 35억원·연봉10억원)에 계약을 하면서 화려하게 막이 오른 FA 시장은

KIA는 당혹감 속에 부랴부랴 서울로 달려가 데이블을 마련했다. 이후 두 차례의 만남 끝에 60억 안팎의 금액을 놓고 얘기가 이뤄졌지만 16일 저녁 협상 결렬이 선언됐다. 정근우도 70억과 80억을 놓고 SK와 마지막 자리를 한 뒤 FA 시장으로 나왔다. 이후 원소속 구단과의 협상 시한이 넘자마

작년 김주찬 영입경쟁 KIA 승리

올해 한화 67억 배팅 이용규 잡아

LG 이대형, 24억에 KIA와 계약

원소속 구단과의 우선협상 마감날이었던 16일을 기점으로 야구판을 들쭉날쭉했다.

이번 시장의 대어로 꼽히던 이용규와 정근우의 행보가 FA 시장을 출렁이게 했다. 정근우가 SK와 초반부터 큰 이견차를 보이며 난항을 겪었던 것에 반해 조용하던 이용규가 원소속 구단과의 협상 마감 하루를 남겨둔 15일 돌연 ‘KIA와의 결별’을 언론에 얘기하면서 폭풍이 불었다.

이용규는 정확한 금액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불편한 심경을 노출했고, 15일 금액 제시를 놓고 또 다른 만남을 약속했었던

자 기다렸다는 듯 한화와의 계약이 발표되면서 야구계에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두 선수의 한화행은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 됐다.

정근우는 4년간 총액 70억원(계약금 35억원, 연봉 7억원, 옵션 7억원)에 계약을 끝냈고 이용규는 4년간 총액 67억원(계약금 32억원, 연봉 7억원, 옵션 7억원)에 도장을 찍었다.

역대 최고 기록이었던 심정수의 60억을 뛰어넘는 물량공세였다. 혹시나 했던 과정이 역시나하는 결과로 귀결되면서 가슴 졸이던 팬들의 가슴에는 생채기가 남았다.



이용규



정근우



이대형

로 돌아섰다.

이 과정에서 KIA와 한화의 눈치싸움이 벌어지면서 ‘50+@’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FA 시장은 과열 양상이 됐다. 결론은 지난 겨울은 김주찬을 위한 스토브리그가 됐고 선수들의 눈은 한층 높아졌다.

대어 선수들이 대거 시장으로 나온 올 시즌은 지난해 여파로 더욱 뜨거웠다. KIA가 기준점을 높여 놓았고, 한화는 승자가 되기 위해 기를 부었다. KIA와 한화의 ‘전의 전쟁’ 2라운드는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올 시즌 FA 선수들은 수

해자가 됐다.

광주일고 출신의 이대형도 FA 홍콩 속 금의환향에 성공했다. 이용규의 이탈에 따른 외야 공백을 채우기 위해 KIA는 17일 빠른 발의 이대형을 선택했다. 높아진 물가와 외야 고민으로 4년 총액 24억원(계약금 10억원, 연봉 3억원, 옵션 2억원)이라는 ‘깜짝 배팅’을 하면서 이대형이 웃었다.

어느 때보다 뜨거웠지만 뒤끝이 매끄럽지 못했던 FA, KIA와 한화가 합작한 ‘전의 전쟁’에 팬들의 가슴도 함께 타버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승승장구 홍명보號

기대만발 러시아전

19일 올 마지막 평가전…스위스전 역전승 자신감 충만



지난 15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 대 스위스와의 평가전에서 이정용(오른쪽)이 역전골을 넣은 뒤 기성용과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엇보다도 FIFA 랭킹 7위인 ‘유럽 강팀’ 스위스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둬 불과 반년 앞으로 다가온 본선 무대를 향한 선수들의 자신감이 충만해졌다는 게 가장 큰 성과다.

이탈리아의 명장 파비오 카펠로 감독이 러시아는 브라질 월드컵 유럽예선에서 포르투갈을 제치고 F조 1위(7승1무2패)로 본선행 직행 티켓을 따낸 강팀이다.

예선 10경기에서 20득점에 단 5실점만을 허용할 정도로 공·수 양면에서 균형이 잡힌 팀이다. ‘질식수비’로 이름이 높다는 스위스(6실점)보다도 적게 골을 내줬다.

홍 감독은 장거리 이동에 이은 평가전인 만큼 무엇보다도 선수들의 컨디션 회복 여부에 중점을 뒀 베스트 11을 구성할 계획이었다.

다만 스위스전에서 홍명보호가 출범 이래 가장 빼어난 경기력을 보여준 만큼 전열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수비벽을 뚫어낼 선봉 역할을 ‘홍명보 축구’의 원톱 자질을 드러낸 김신욱이, 좌·우 날개는 손흥민(레버쿠젠), 이청용(볼턴)이 변함없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비진도 여느 때처럼 왼쪽부터 김진수(니가타), 김영권(광저우), 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 이용(울산)이 포백(4-back) 라인을 구축할 전망이다.

2선 중앙 공격수로는 스위스전에서 비교적 부진한 경기력을 보인 김보경(카디프시티) 대신 후반 교체 투입돼 공격에 활력을 더한 이근호(상주)가 홍 감독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블 볼란테’로는 박종우(부산)가 기성용(선덜랜드)의 파트너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홍명보 호에 처음으로 합류한 고명진(서울)의 시험가동 가능성도 적지 않다. 태극전사들이 낮은 기후와 장거리 이동에 따른 컨디션 난조를 극복하고 또다른 유럽 강호를 상대로 3연승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추위는 물렸거라~

광주·전남 윈드서핑 동호인들이 17일 무안군 현경면 오류리 출동해수욕장에서 열린 광주 윈드서핑 페스티벌대회에서 역주하고 있다. 광주 윈드서핑 연합회(회장 문건주)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 김덕룡 씨가 1위를 차지했고 심승호, 박주혁 씨가 2, 3위에 올랐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광주FC, 마지막 자존심 지켰다

K리그 챌린지 33R…상주상무에 2-1 설욕 3위 굳히기

광주 FC가 상주 상무와의 마지막 승부에서 설욕전에 성공했다.

광주 FC가 지난 16일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상주 상무와의 K리그 33라운드 경기에서 김은선과 임선영의 연속골을 앞세워 2-1 승리를 거뒀다.

올 시즌 상주전 4연패에서 탈출한 광주는 3연승을 찍으며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다.

두 경기 연속 4골을 몰아넣었던 광주가 전반 10분 만에 선취골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상주 문전에서 임선영의 패스를

받은 부주장 김은선이 세 명의 수비수 틈으로 침착하게 오른발 슈팅을 날리며 골망을 흔들었다. 김은선의 시즌 7호골이다.

기선 제압에 성공한 광주는 적극적인 공격세로 상주를 압박했다. 전반 39분에 나온 임선영의 골은 승리의 결정타가 됐다.

박현이 상주 진영 오른쪽으로 파고들면서 상대 수비진을 흔들었다. 골키퍼를 골문 밖으로 몰라낸 박현은 슈팅을 날리는 대신 왼쪽으로 스루패스를 했고 반대쪽에서 침투하던 임선영이 공을 잡아 그대로 골문을 갈랐다.

다. 앞서 4번째 도움을 올린 임선영의 시즌 4번째 득점. 광주의 짜임새 있는 공격이 멋진 골로 연결된 장면이기도 했다.

광주는 임선영의 골이 나온 지 2분 만에 상주 교체성에게 골을 내주는 했지만 후반전을 실점 없이 지키며 상주전 연패에서 탈출했다.

승점 3을 더한 광주(15승5무13패·승점 50)는 수원 FC(12승8무13패·승점 44)와 격차를 벌리며 3위 굳히기에 들어갔다.

상주는 챌린지 리그 우승 시상식을 앞두고 열린 경기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입맛을 다셨다. 이번 패배로 상주의 12연승 도전도 물거품이 됐다.

/김여울기자 wool@

이슬기, 2년만의 ‘천하장사’

이슬기(26·현대 삼호중공업)가 2년 만에 천하장사에 등극, 완벽한 부활을 알렸다.

이슬기는 17일 충남 서산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2013 IBK 기업은행 천하장사씨름대축제 장사결정전(5전3승제)에서 ‘대확생 장사’ 김재환(용인대)을 3-0으로 제압하고 2011년 이후 2년 만에 천하장사에 올랐다. 이슬기는 2011년 설날장사대회 등에서 우승하고, 2012년 대한씨름협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는 등 전성기를 누렸지만 2012년 9월 추석장사씨름대회 출전을 앞두고 무릎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으로 약 1년 동안 모래관을 떠나야 했다.

이슬기는 복귀 2개월 만에 천하장사에 올라 상금 2억원과 함께 과거의 영광을 되찾았다.

/연합뉴스